

담양군, 지역성 담긴 콘텐츠로 ‘관광 르네상스’

죽녹원 등 명품숲에 문화 접목
용마루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도 개최

담양군이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담은 풍성한 콘텐츠로 1500만 관광객이 찾는 ‘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담양의 3대 명품숲’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돼 매력적인 문화자원으로 인정받았다. 훌륭한 자연경관에 더해 여행객들을 사로잡을 콘텐츠 개발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담양호 용마루길을 최고의 명품 산책길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27년까지 약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황톳길, 텍(deck)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용마루길과 금성산성을 잇는 다리(미르교)를 설치하는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용면이라는 지명에 따라 용을 뜻하는 ‘미르’를 다리의 이름으로 정했으며, 총 28km에 이르는 담양호 주변 산책로를 최단거리로 가로지르는 미르교를 통해 다양한 트래킹 경로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8월 메타세쿼이아길에 걷기 좋은 흙길을 조성한 이후 관광객이 44% 증가함에 따라 대나무생태공원에



담양군은 2027년까지 약 1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담양호 용마루길에 황톳길, 텍(deck)길을 추가로 조성하고 용마루길과 금성산성을 잇는 다리(미르교)를 설치하는 ‘담양호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담양군 제공

1.5km에 달하는 흙길을 추가로 조성했다.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사찰 33곳에 선정된 추월산 보리암 아래에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명상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제명상센터가 조성되면 담양군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생태와 힐링으로 대표되는 관광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을 원도심에 지난 2월 문을 연 담주 다미담 예술구는 현재 15동 30실이 입주해 청년 상가, 공방 등 다양한 상업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공연과 다양

한 문화예술 행사로 거리를 채워 죽녹원 등 주요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결하고 있다.

10월에는 전국 첫 지역도가 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죽향도가(대대포막걸리), 추성고을(추성주), 하심당(석탄주), 담주브로이(수제맥주), 아침이슬포도원(고서와인)의 ‘담양 5대 도가’와 지역 농산물로 만든 요리를 함께 즐기는 ‘담양 다미(味)담주(酒) 페스티벌’을 열었다.

시음 행사와 맛있는 담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음식들

을 선보였으며, 공예품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베품시장과 각종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아울러 메타세쿼이아길과 원도심에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축제를 준비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산타와 함께하는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 메타프로방스, 원도심 일원에서 2023 담양메타뮤직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조명과 특색 있는 촬영 공간, 크리스마스 소품들을 배치해 겨울 관광객을 맞이한다.

담양대표 관광지인 메타세쿼이아길에 뮤직페스티벌의 주 무대를 마련했으며, 이곳에서 하이키와 프로미스나인, 노라조, 코요태 등 인기가수들의 무대가 펼쳐지고, ‘산타 왕을 찾아라’ 등 각종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진 담양을 즐기기 위해 약 14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자원을 개발해 2000만 관광객이 찾는 담양다운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함평군, 낙지 8800마리 방류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함평군은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함평만 해역에 낙지 8800마리를 방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지난 6월 낙지 1만4000마리 방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방류이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군은 함평만 일대에 조성한 인공산란장 10개소에 관할 어촌계와 함께 낙지 산란·방류 작업을 실시했다.

방류된 어미낙지는 내년 봄에 산란해 1마리당 100~160개의 알을 산란하게 되고 1년 후 성숙 낙지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란장 조성 사업 효과조사 결과, 2021년 대비 2022년 함평만 해역 낙지 서식 밀도가 78% 증가했으며, 위판량은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의 대표 수산물이자 갯벌 연안의 고소득 품종인 낙지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어업인 소득도 증대하고 갯벌 생태계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담양시장 1층 입점상인 모집
내년 3월께 재건축공사 준공

담양군은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담양시장 재건축공사 준공이 내년 3~4월로 예정됨에 따라 1층 상설시장 점포 구성을 위한 입점상인을 우선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담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담양군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허가 기간 3년, 임대료 산정기준 등이 있다.

현재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는 담양시장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누리집(<https://www.damyang.go.kr/>) 공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담양군청 경제교통과(061-380-31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

화순 능주 파크골프장 휴장
내년 1월부터 동절기 잔디 보호

화순군은 동절기 잔디 보호 및 시설물 보수,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내년 1월1일부터 4월1일까지 능주 파크골프장을 휴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능주 파크골프장은 올해 3월에 18홀로 개장하였으며, 사통팔달의 입지적 여건, 맑고 확 트인 지석강 변, 연주산의 푸르름까지 만끽할 수 있어 전국에서 인기 있는 파크골프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화순군은 이번 휴장 기간에 훼손된 잔디를 보식하고, 홀컵 주변 등을 보수할 계획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장성군, 9100농가 152억

장성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52억원을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적인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 농업인 지원제도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헥타르(ha) 이상 0.5헥타르 이하 △농촌 3년 연속 거주 △3년 영농 종사 등 8가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다.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인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경작면적 구간별 적용 단계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다.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지급된다.

올해 장성군은 3556농가에 소농직불금 42억 6000만원을, 5551농가에 면적직불금 109억 4000만원 지급을 확정했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지급 대상이 807명 늘었으며, 지급액도 6억원 가량 증액됐다.

앞서 장성군은 비대면(온라인)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지난 2~5월 접수를 받았다. 이후 11월까지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직불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이달 최종 지급대상자 9107농가를 확정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내년부터 소농직불금 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용산1, 사랑의 김장 나눔

다.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나주용산1단지(센터장 서윤영)는 나주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통해 담근 김장김치를 어려운 입주민 60세대에 전달했

나주용산1 제공

2030년 나주~부산 2시간대 간다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나주혁신도시역’ 신설

나주시가 국가철도망 건설로 영·호남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철도공단의 ‘광주 송정~순천 간 단선전철 철도건설사업’(2023~2030년)에 따라 나주 혁신도시에도 역사가 신설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1366억원을 투입해 광주역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에서 나주(빛가람) 혁신도시를 거쳐 순천역까지 총연장 121.5km구간 선로를 신설·개량하는 사업이다.

확정된 노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나주혁신도시역(신설)~보성역~별교역~순천역’이다.

총구간 중 89.2km는 단선전철로 신설

하고 나머지 32.3km는 기존 선로를 활용하게 된다.

개통 예상 시점인 2030년 하반기엔 나주혁신도시역에서 기차를 타면 2시간 내에 부산역 도착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차·고속버스 편으로 나주에서 부산까지 최소 3시간 30분에서 길게는 4시간이 넘게 소요된다.

나주시외버스터미널이나 나주혁신도시 임시정류소에서 부산행 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사이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에 도착한다.

비교적 빠른 교통수단인 고속열차도 KTX나주역에서 익산역과 오송역에서 2차례 환승한 후 부산역까지는 약 3시간 40분에서 4시간 가까이 소요 된다.

하지만 광주송정~순천간 철도개량 사업이 완료되면 경전선의 비전철 구간이었던 광주 송정에서 나주~순천 간 전철화 등 고속화 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지역 간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광주역에서 순천역까지는 기존 소요시간인 152분에서 도착까지 52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된다.

또 광주역에서 종점인 부전역까지 기존 5시간 45분에서 3시간 24분이 단축된 2시간 21분으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한국전력 등 16개 이전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가 위치한 나주혁신도시는 기차역이 신설되면 도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 송정~순천 간 국가철도 건설사업은 내년 상반기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본격 착공한다”며 “오는 2030년 철도가 개통되면 영·호남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기자